

광주 모든 중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시교육청, 80명 신규 모집 2학기부터

오는 2학기부터 광주시내 중학교 82곳에 모두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강사 80명을 새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 등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얻은 외국인이나 이들 국가에서 최소한 중학교부터 교육받아 학사 학위 이상을 얻은 교포 등이다.

현재 시교육청 소속 원어민 강사는 34명. 일선 학교에서 채용한 원어민 강사(19명)까지 포함하더라도 53명 수준이다. 시교육청의 계획대로 채용이 이뤄질 경우 광주지역 전체 원어

민 강사 수는 100명을 훌쩍 넘게 된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원어민 강사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2010년까지 전국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올해 예산은 6억원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매년 100명 수준의 원어민 강사 수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우수한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 국내 원어민 수요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교육진흥원에 채용을 의뢰하는 한편, 7개 영어 사용 국가의 대학이나 기관과 연계해 원어민 강사 채용에 관한

MOU(양해각서)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이 면접을 통해 1차 검증을 마친 뒤 시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또 시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직접 면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80명을 목표로 했지만 국내 원어민 강사 수요가 워낙 많이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중학교에 우선 배치해 영어교육 강화 정책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에서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 학교는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42곳 ▲고등학교 12곳 등이다.

/정수필기자 camus@kwangju.co.kr



교통사고 줄임시다 도로교통공단 전남지부가 주최하고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후원한 '2008년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가 5일 오전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전남모범 운전지회 등 행사에 참가한 교통가족 600여명이 교통문화 확립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 시내버스 운행속도 감소 대중교통 만족도는 최고 수준

지난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의 시내버스 평균 운행속도가 전년에 비해 빨라졌으나 광주만 유일하게 되레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중교통 접근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대중교통 및 환승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전국 83개 도시의 대중교통 현황을 분석해 내놓

은 '2007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시내버스 평균 속도는 2006년 시속 18.36km에서 지난해에는 17.50km로 시속 0.86km 감소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주요 버스 노선의 정체 구간 비율은 11.5%로 7개 도시 가운데 대구(5.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8.1%로 2006년 15.6%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편리성을 나타내는 접근시간은 광주가 5.4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빨랐다. 전국 평균 대중교통 접근시간은 6.9분이었다. 전남은 7.1분으로 9개 도시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광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만족도는 7점 척도에서 5.32점을 얻어 7개 도시 가운데 울산(5.35점)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시설만족도(5.27점)와 기대 대비 만족도(5.25점)는 가장 높았다.

/정수필기자 who@kwangju.co.kr

“승진 임용 공표하고 미임용땐 위법”

광주지법, 공무원 손들어줘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공표하고도 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5일 광주지청 공무원 정모(60)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광주시장이 정씨를 3급(지방 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장은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등이 정씨를 교체 요구한 사유 이외에 정씨를 지방 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을만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 등이 없었음에도 정씨를 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8명의 3급 승진후보자 중 2명의 승진대상자에 포함됐고, 시장이 이를 공표한

점,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의 사무국장 교체 요구는 정씨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불일치에 기인한 점 등도 감안했다.

시는 2004년 3월 국가 서기관(4급)이던 정씨를 지방 부이사관(3급) 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하고 구내방송·내부 통신망·지역신문 등을 통해 알렸으나 정씨가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비엔날레 제단과 갈등을 겪자 같은 해 8월 정씨를 승진발령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정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지방 부이사관 승진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와 관련, “정씨에게는 부이사관 승진 임용 신청권이 없다”고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광주고법에 파기환송했으며, 고법은 다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지역 의료기관 절반 응급실 전담의사 부족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응급실 전담의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역의 응급의료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병·의원급) 30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9곳(51%)이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을 배치토록 한 법정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4시간 응급실 전담의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응급의료기관도 71곳에 달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주도로 지난해 9월~11월 전국 428개 응급의료기관(권역센터 16곳, 전문센터 4곳, 지역센터 99곳, 지역기관 30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광

주·전남지역 67개 응급의료기관(권역 2곳, 전문 1곳, 지역센터 11곳, 지역기관 53곳)도 포함됐다.

기관별 평가 결과를 보면 권역응급센터에서는 목포한국병원, 서울대병원, 가천의대 중앙길병원과 함께 최우수를 나타내는 A등급을, 전남대병원은 B등급을 받았다. 전문의료센터 부문에서 조선대병원은 B등급을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하남성심병원, 목포중앙병원, 순천성가톨릭병원이 A등급을 받은 반면, 화순전남대병원, 남광병원, 광주지독병원, 철산종합병원, 여천전남병원, 순천중앙병원, 고흥중앙병원, 해남종합병원은 C등급을 받았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여수산단 정전 사고 한화석유가 원인 제공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여수산단 정전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한화석유화학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화석유화학 측 구내 피뢰기가 노후화로 불에 타 부서졌고 이에 따른 지전 압 현상을 한화 측 모션보호계전기기가 적시에 차단하지 못해 22개 업체에 전체 또는 부분 정전을 일으켰다. 사고 피뢰기는 염분이 많은 해안지역에 있어 노후화에 취약했으나 28년 동안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15년마다 교체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달리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햇살도 호국영령 추모 6월 6일
(음 5월 3일)

고기암의 영향을 점차 받쳤으며 구름이 조금 끼겠다.

| | | |
|-----|-------|---------|
| 광주 | 구름 조금 | 15~25°C |
| 전남 | 구름 조금 | 15~23°C |
| 전북 | 구름 조금 | 16~23°C |
| 충청 | 구름 조금 | 15~23°C |
| 경상 | 구름 조금 | 13~26°C |
| 강원 | 구름 조금 | 14~24°C |
| 제주 | 구름 조금 | 15~25°C |
| 서울 | 구름 조금 | 13~24°C |
| 부산 | 구름 조금 | 13~24°C |
| 대구 | 구름 조금 | 14~24°C |
| 대전 | 구름 조금 | 15~25°C |
| 인천 | 구름 조금 | 12~25°C |
| 안동 | 구름 조금 | 14~20°C |
| 울릉도 | 구름 조금 | 14~20°C |
| 독도 | 구름 많음 | 14~20°C |

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0.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0.5m
목포 밀물 < 04:03 썰물 < 09:15
여수 밀물 < 10:43 썰물 < 04:46

▲해돋이 05:18 ▲해질 19:44 ▲달돋 07:26 ▲달질 22:30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7(토) | 8(일) | 9(월) | 10(화) | 11(수) | 12(목) |
|-------|-------|-------|-------|-------|-------|-------|
| 날씨 | | | | | | |
| 최저/최고 | 16/25 | 17/25 | 16/28 | 16/26 | 17/25 | 17/27 |

낙뢰 8월 최다... 지난해 65만건이나

지난 4일 밤 광주지역에 강한 비와 함께 낙뢰가 발생했다. 이날 해남에서는 낙뢰로 인한 주택 화재 사건도 일어났다. 낙뢰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까. 기상청이 최근 '2007년 낙뢰연보'를 발간했다.

낙뢰연보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07년. 월별로는 8월이 낙뢰빈도 최고를 기록했다.

2007년 전국 낙뢰발생건수는 155만5230회. 이밖에 ▲2003년 135만2천424회 ▲2005년 130만 6천581회 ▲2006년 119만4천

170회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8월 낙뢰발생건수는 64만9천997회. 겨울철 갈수기인 2월 1천114회에 비해 무려 60배나 많았다. 낙뢰를 발생시키는 구름대가 대기가 불안정한 8월에 많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남서내륙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12월22일 독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낙뢰가 312.4kA(초고압 송전선 전류 용량의 약 270배)를 기록, 가장 강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오늘 53회 현충일 추념식 광주일보 주최 '광일 보훈대상' 시상식도

광주와 광주지방보훈청은 6일 오전 10시 광주공원 내 '우리 위한 영의탑' 앞 광장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을 갖는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35회 광일 보훈대상' 시상식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윤영근(전상군경 4급·63·광주 북구 동림동)씨 등 5명에게 보훈대상이 수여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묵념을 위한 사이렌이 울리며, 전국 공공기관과 가정에서는 조기를 달게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되새겨요 호국충정 꽃피워요 선진한국

광주화교소학교 유치부 신입생 모집광고

- 모집 연령: 4~6세 (입학준비반)
- 지위: 지역: 2002년 1월 이후 2000년 12월 31일 현재까지
- 원칙: 교부: 100세 미만 (입학일 기준) - 유학: 10월 31일 이전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1 (광주동) 소재
- 관서: 광주: 2008년 5월 11일 - 5월 11일
- 원칙: 입학: 2008년 5월 11일 - 5월 11일
- 원칙: 입학: 2008년 5월 11일 - 5월 11일

문의: 1577-0733

오피스빌·상가 임대/분양

1577-0733